

6·25 서른 아홉돌에 부치는 提議

● 柳俊馨 / 韓國防衛産業振興會
상근부회장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軍을 위한
민간차원에서 범국민적인 지원
단체는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6·25
39주년을 맞아 호국영령前에 옷깃을
여미며, 먼저 우리 육군을 위해
각 기업체를 비롯한 전 국민(희망자)
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할수 있는
협회성격의 육군 지원 법인체 설립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수 없는 아픔을 새
기게 했던 6·25동란이 발발한지도
어언 서른아홉 星霜을 보게 되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의 슬픔을 몰고온 6·25는 39
년전의 비극으로서가 아니라 며칠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짐은 물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각오를 용솟게 합니다.

民族史적인 발자취의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民族相殘의 처절한 전쟁은 光復과 동시에
분단을 체험해야 하는 커다란 고통을 가져왔
으며, 우리의 반만년 역사에 실로 심각한 파괴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恨과 함께 언제나 변함없이 민족의
깊은 傷痕으로서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6·25지만, 해마다 6월이 오면 눈시울이 더욱
뜨거워지며, 새로운 각오가 일깨워집니다.

6·25의 만행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과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일성 집단은 39
년의 휴전기간동안 무장공비의 침투는 물론 8·
18 도끼만행 사건, 땅굴기습획책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의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은 물론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우위만을 추
구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각종 報道에 따르면, 북한은 지상군의
3분의 2를 휴전선 북방에 전진배치시켰으며,
1987년부터 소련의 SU-25와 MiG-29 최신예 전
투기를 도입하는등 제2의 6·25를 통한 적화통
일을 획책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음을 알수 있
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美 의회에 제출된 「1990년 연
례 국방보고서」에 나타난 Frank C. Carlucci 前
美 국방장관의 발표에서도 명확히 알수 있습
니다.

칼루치는 『장기적으로 볼때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활성화가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겠지만,

북한이 현재 진행시키고 있는 軍현대화와 예측할수 없는 태도등은 경계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고 밝히면서,

『병력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전차, 砲, 地對地 유도탄등 지상공격력과 地對空 유도탄, 제트전투기등 공군력 및 해군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 김일성 집단은 공산독재를 위한 한반도 적화 전략 및 전술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으며, 이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민족보존을 위해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지사요, 우국지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 국군장병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커녕 오히려 냉대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시 국내외에서 침입하는 적을 제일 먼저 접촉하여 교전과 함께 격퇴시킬 집단은 국군뿐입니다.

「居安思危」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시 이들을 아끼고 지원하여 비상시에 그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울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범국민적 지원단체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입니다.

미국의 경우 美 육군협회(AUSA, Association of the U. S. Army)등 각종 지원단체가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AUSA는 美軍과 미국인과의 상호 협조는 물론 친선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1950년에 창설된 美 육군을 위한 지원단체입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알링턴市에 본부를 둔 AUSA는 미국 내 각州는 물론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美 육군을 위해 1백33개의 支部를 운영하고 있으며 8천여개에 달하는 세계 有數의 기업체가 회원



사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AUSA는 이들 회원사간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이익을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美 육군의 교육, 복지는 물론 예산획득, 장비현대화등 전반적인 면을 지원하며, 예산확보를 위한 對국회 로비까지 전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을 위해 AUSA 한국지부가 있으며, 이 지부와 협조를 위해 韓美親善軍民協議會가 1983년 9월에 창립되어 5백여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 軍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이러한 성격을 지닌 지원단체는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6·25 39주년을 맞아 호국영령前에 옷깃을 여미며, 먼저 우리 육군을 위해 각 기업체를 비롯한 전 국민(희망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할수 있는 협회성격의 육군 지원 법인체 설립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군의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과의 유대가 더욱 강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